

# L'OFFICIEL HOMMES

KOREA



SPRING/SUMMER  
2024

AMTD 2024

X EDITION



POSSIBLY

어느 예술기와의 대화.

2018년 서울 갤러리바톤에서  
열린 막신 마시요브스키 개인전  
《Rephrase it Positively》,  
courtesy of Gallery Baton.



EDITOR LEE GA JIN

# CONTEMPORARY



1



2

막신 마시요브스키(Marcin Maciejowski)의 작품을 만나  
보고 지냈던 건 아니다. 어느 날 우연히, 관심적으로 찾아  
본 뉴스레터 속 그림 한 점이 기억을 소환했다. 친근한 아이  
자적 기대어 천개 읽을 수 없는 언어의 의미를 어렵듯이 헤  
아리고, 서둘러나마 먼 곳의 삶을 더듬어보게 하던 폴란드  
출신 화가. 특별한 이유나 화젯거리 없이도 안부를 묻고 싶  
은 이들이 있으므로, 친지간 예술가에게 어울릴 법한 친지  
한 질문이 떠올랐고,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기대를 갖도는  
디자이너 박한답안이 돌아왔다.

**LH** 2018년 한국에서 첫 개인전을 치렀으니 벌써 6년  
전이다. 그간 어떻게 자셨나?

**MM** 갤러리바론에서의 개인전 이후로 예술, 예술 그리  
고 또 예술 작업과 전시가 전부인 시간을 보냈다. 가장 좋  
은 의미로 일상적인 화가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간 듯하다. 관에는 그다지 분명치 않았  
던,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 내제는 희  
극적인 시가이기도 했다.

**LH** 사실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는 지리적·문화적 거리  
감이 상당하다. 최근 폴란드 미술계의 이슈는 무엇  
인가? 특히 한국에 공급할 점도 있나?

**MM** 내 삶은 폴란드 미술계의 최신 동향과 거리가 있는  
편이다. 나만의 작업 세계에 집중하고 미술 행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근대미술, 200년 또는 500년 전

의 미술, 문화학 연구 등 복잡한 예술 현상에 더 관심이 많  
다. 나는 젊은 작가에게 '동시대의 현실, 특히 문화를 따르  
고 있다. 라디오를 많이 듣고,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즐겨  
보고, 유튜브 채널을 시청한다. 건축에도 관심이 많아 크  
라쿠프 미술 아카데미로 옮기기 전에 3년 동안 건축을 공부  
하기도 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  
다. 돌아오면 나만의 스튜디오를 차리겠다는 생각에 자연  
스럽게 건축, 현대적 인테리어, 아름다운 단순함, 디테일에  
대한 집중, 박물관의 복장 등을 관찰했다. 그곳에서 폴란드  
인간 중심의 편안한 미학을 통사의 강조하는 놀라운 다과  
인을 접했다. 이는 자대한 영감을 주는 경험이었다. 오늘날  
한국 예술계에서 이러한 특징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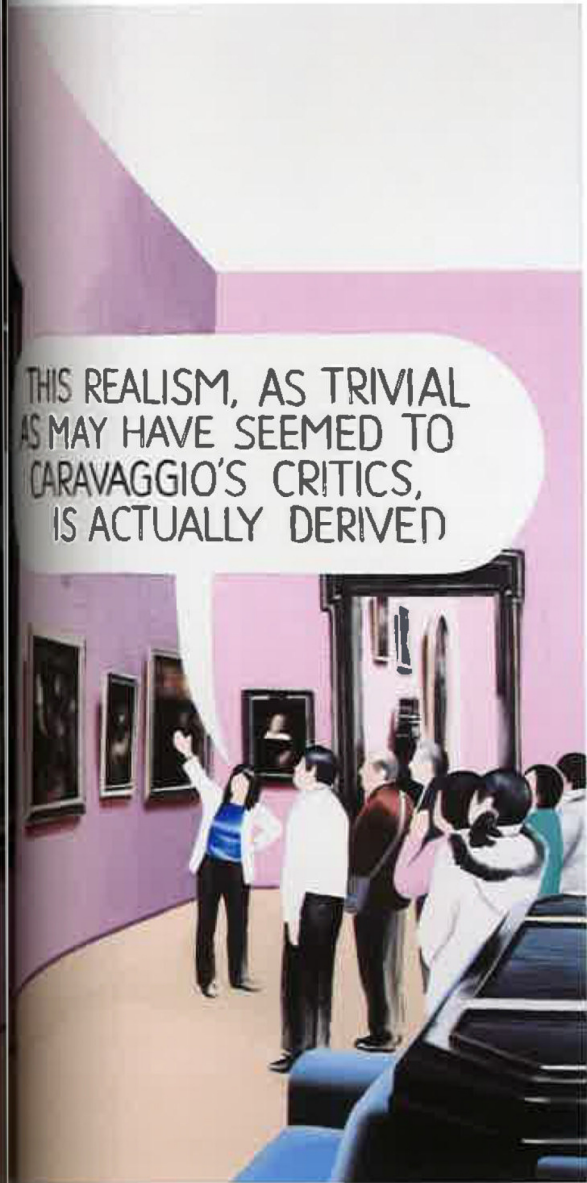
**LH** 당신을 필은 듯한 인물이 고양이와 함께한 그림  
(Surprised at the World, and You?) (2020)가  
눈에 들어오면, 혹시 고양이를 키우나?

**MM** 그 작품은 5년 동안 작업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  
던 스시라는 고양이와 함께한 모습을 담은 자화상이다. 나  
와 아내는 스시를 무척 귀여워했다. 태라스와 창가에 고양  
이 전용 음식과 물그릇, 장난감을 두었고 스시가 좋아하는  
낮잠 장소도 있었다. 그곳에선 스시가 정원과 거리, 그리고  
민거나 말거나지만 자기 걸까지 지켜볼 수 있었다. 엄밀히  
말해 스시는 이웃집 고양이였지만 집이 하나보다 두 개 있  
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재미있고 특별한 고

양이었는데 안락집에도 작년에 이웃들과 휴가를 마친다  
가 심통되었다. 정말 그렇다. 그리고 양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고 그의 작품에 영감을 주었다. 고양이는 하루  
의 리듬과 일상을 좋아하고, 긴 산책 후 집으로 돌아오고 싶  
어하는 집안이라는 양에서 나와 배알아 있다.

**LH**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점점  
극단 폴란드에서도 마냥 마음 편하게 지내진 못하  
울 것 같다. 조심스럽지만, 이 전쟁이 당신의 일상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봐도 될까?

**MM**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직후 몇 번째 난민  
이주 물결이 폴란드로 몰려다치자마자 기자연과 버스 정차  
장은 혼통 만원을 이뤘다. 대부분 아이와 함께 온 여자는  
자물 메리고 온 노인,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온 젊은이들  
지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바닥에서 잠을 잤고, 고양이와  
개 등 반려동물과 함께 자냈다. 초창기에는 다른 많은 폴란  
드인과 마찬가지로 샌드위치와 빵을 들고 역에 가서 나눠 주곤  
했다. 다행히 일주일 만에 금식소와 샤워 시설이 설치되었다. 폴  
란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인을 매우 적극적으로 보았다.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 크라쿠프는 폴란드-우크라이나 국  
경에서 250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 몇  
주 동안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몰려들었다. 그들 중  
다수는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곳에 정착  
해 일하거나 대학에 다니고 있고, 일부는 우크라이나로  
아갔지만 일부는 돌아가길 두려워한다. 폴란드 예술계는



3



5



6

그들의 구호 행동에 깊이 관여했으며 지금도 많은 우리  
 라이나 예술가가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실 이웃 나라  
 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진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 지금도 동부 국경 바로 뒤에서 우크라이나 군  
 인들이 참호 속에 웅크린 채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고, 그곳  
 에 남아 살아가기로 결정한 민간인들이 있다. 학교, 병원,  
 미술관이 폭격당하는 동안에도 삶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  
 다는 사실에 이러한 위험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했다. 북한  
 과 관련된 특별히 입은 모습의 사진을 자주 본다. 때로는  
 죽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한다.

**LH** 당신 그림 속 인물들은 생각세가 다르다는 사실 외  
 에는 전시장에서 작품을 보고, 거울 앞에서 셀피를 찍  
 기고, 술을 잔뜩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등 한국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어쩌면 그 부분이 '공감  
 을 느끼는 자질'이기도 하고, 초연결 시대인 21세기  
 에 과연 외화에 특별한 힘을 부여하는 요소는 무  
 었을까?

**MM** 그림은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땅금 몇몇 개어 하나  
 들었는데, 덕분에 하루가 즐거워지고 에너지 넘칠 것 같다.  
 유아의 리모콘사는 가끔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 한 점을 보  
 기 위해 미술관에 가기도 한다. 그녀는 이를 통해 새로운 열  
 개라진 쇼의 시은 전체를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  
 고 말한다. 21세기는 수천 개의 디지털 이미지가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세상이다. 이런 곳에서 좋은 그림, 즉 회화에

술은 시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사치를 제공한다고 본다. 아마 당신이 술을 지도, 그것  
 은 회화가 지닌 보편성의 일종인 공동체 의식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요즘은 그림이 매우 대중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공동의 의식이 더욱 필요할 듯하다.

**LH** 당신의 사진을 남겨두고 캔버스에 옮기고 싶은 욕  
 망을 자극하는 이미지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본  
 적이 있나? 일종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고.

**MM**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특정한 주제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 현대의 일상, 내가 사는 시대와 주변 세계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을 선택한다. 이 모든 것은  
 종종 의상 제의에 의해 표현된다. 셀피를 찍고, 미술관에  
 가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갤러리와 바에서 사람들을 만  
 나고... 넓은 의미에서 문화, 특히 예술과 내가 맺는 관계  
 가 내 작품의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다.

**LH** 당신의 스타일을 내러티브 리얼리즘(Narrative  
 Realism)으로 정의하는 글을 읽었다. 이러한 개념  
 에 동의하나? 당신이 생각하는 내러티브 리얼리즘  
 에 대해 설명해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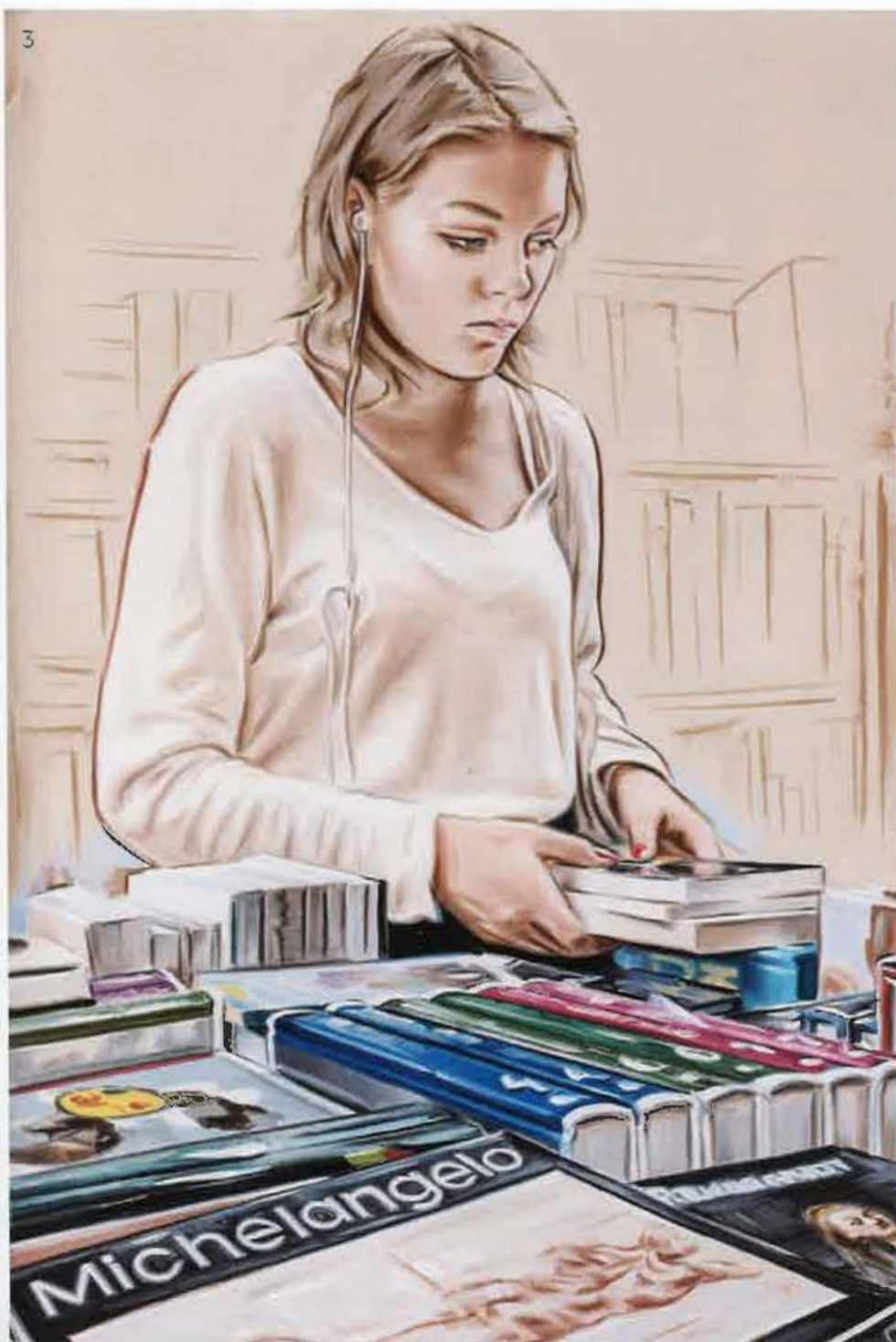
**MM** '내러티브 리얼리즘'이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내 모  
 든 그림이나 드로잉이 이야기, 일화 또는 내러티브로 빚  
 칠되기 때문이다. 그림에서는 나 자신보다 세상과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슬프다고 해서 그림 고

침으로 그리지는 않는다. 나 이외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  
 편적인 이야기,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라면 나의 부러  
 움, 꿈 또는 감정 상태를 그리지는 않는다. 나는 주변 세계  
 와 내가 살고 있는 시대나 현실에 관심이 많다. 책을 많이  
 읽고, 라디오를 듣고, 뉴스 사이트, 때로는 가십 사이트도  
 살펴본다. 오래되거나 새로운 신문과 잡지, 예술 관련 잡지  
 간행물 등을 보는데 모든 매체에서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  
 고 있고, 이것이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다. 여기에서 그  
 립과 드로잉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1** <Dimmed Colours (based on the Movie with Kirsten Dunst)>, 2016, Oil on Canvas, 160x130cm ©Marcin Maciejowski, courtesy of Thaddaeus Ropac Gallery. **2** <4:3 (The Berggruen Museum, Berlin)>, 2016, Oil on Canvas, 190x150cm ©Marcin Maciejowski, courtesy of Thaddaeus Ropac Gallery. **3** <This Realism as Trivial>, 2009, Oil on Canvas, 150x150cm ©Marcin Maciejowski, courtesy of Gallery Meyer\*Kainer and Gallery Baton. **4** <I used to live in Vienna, now I live in L.A. and the paintings have followed me here>, 2006, photograph by Johannes Stoll / The Belvedere Museum Vienna Collection ©Marcin Maciejowski, courtesy Gallery Meyer\*Kainer, Vienna. **5** <Culture is about Something Else>, 2018, Oil on Canvas, 90x80cm ©Marcin Maciejowski, courtesy of Gallery Meyer\*Kainer and Gallery Baton. **6** <Rephrase It Positively>, 2018, Oil on Canvas, 120x80cm ©Marcin Maciejowski, courtesy of Gallery Meyer\*Kainer and Gallery Baton.

<I've got an eye on you>, 2020.  
Oil on Canvas, 120x80cm  
©Marcin Maciejowski, courtesy of  
Gallery Meyer\*Kainer, Vienna.





1 <Working\_from\_Home>, 2020, Oil on Canvas, 200×150cm ©Marcin Maciejowski, courtesy of Gallery Meyer\*Kainer, Vienna. 2 <What are you working on?>, 2020, Oil on Canvas, 200×150cm ©Marcin Maciejowski, courtesy of Gallery Meyer\*Kainer, Vienna. 3 <Michelangelo>, 2018, Oil on Canvas, 90×60cm ©Marcin Maciejowski, courtesy of Gallery Meyer\*Kainer and Gallery Baton. 4 <The Rest of Reality Seems Too Abstract Right Now>, 2021, Oil on Canvas, 160×120cm ©Marcin Maciejowski, courtesy of Raster Gallery, Warsaw.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 독특한 경험, 자라온 문화라는 렌즈를 통해 예술을 바라본다. 나는 미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경이로움, 즉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느낌을 그들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

**LH** 미디어가 아무리 있는 그대로를 주장해도 결국 편집을 거친 이미지를 보여주기 마련이다. 편집된 이미지를 회화를 통해 재편집함으로써 당신이 추구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MM** 물론 나도 작품에서 현실을 편집한다. 인간의 뇌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다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존재하지 않고 서로 다른 관점만 있을 뿐이다. 나는 내 관점, 즉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작품에서 보편적이거나 시대를 초월하거나 당시 내게 매우 흥미보였던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생로랑 피렌쇼의 모델이 마치 이빨난 벨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런 듯 웅장한 조각상 같은 현대의 성인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적이 있다. 일종의 시각적 착각이었는데, 이를 공유하고 싶어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LH** 이미지 자체로만 보여주는 작품과 이미지 안에 텍스트를 삽입한 작품이 있다. 이 선택을 기르는 기준이 있다면?

**MM** 난 TV의 영향을 받은 세대가 아니다. 신문과 컬러 잡지를 보고 자랐다. (한화책도 좋아했지만 어릴 때는 그런 책도 흔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편집이 있는 이미지, 즉 세상에 대한 그런 식의 설명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신문, 백과사전, 앨범 등의 삽화 아래에 있는 캡션을 항상 좋아했는데, 그림의 내용을 짧게 요약한 경우가 많았다. 가끔 속독 습득하게 느껴지는 캡션이 있으면 그 자체를 작품에 도입하곤 한다. 나는 누군가가 세상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마음에 와닿는 요소를 추출해 작품에 담는다. 엄격한 기준보다는 직관적이지 의존하는 편이다.

**LH** 당신의 그림 속 텍스트는 종종 예술가의 역할, 사회, 문화에 대해 발언한다. 이것이 작가의 생각을 표명한 것이라고 봐도 되나?

**MM** 그렇다, 그런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 하지만 텍스트나 캡션을 포함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에 대한 견해를 표

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흥미를 유발하고, 반응을 끌어내고, 보는 이가 주어진 전술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작품을 보는 사람이 어떤 의견에 공감하거나 그 의견의 보편성이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줬으면 한다. 가끔 좋아하는 영화의 장면이나 등장인물을 그리면서 사람들이 ‘아, 그 영화 대사가 생각나네!’라고 말하며 향수 어린 반응을 보였으면 좋고.

**LH** 때로는 플린트어, 때로는 영어가 삽입되는데, 언어가 임한다는 사실은 당신의 그림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MM** 나는 그림에 플린트어, 영어, 때때로 독일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국제적인 갤러리와 협업하고 전 세계에 그림을 전시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플린트어 미디어뿐 아니라 영미 문화와 독일 잡지에서도 영감을 얻는다. 특히 언어의 소리와 멜로디를 좋아한다. 문장을 결합하는 것은 책이나 시를 결합하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해 보면 많은 행동보다 더 많은 언어가 있다. 언어는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다른 사람의 말을 작품에 인용하는 것이 좋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문장이 이미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직접 만들 필요성까지 느끼지는 못한다.

**LH** 그 결과 당신의 작업이 시대와 사회에 대한 발언 혹은 기록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또한 미래엔 과거가 될 것이고, 미래의 사람들이 당신의 그림을 통해 오늘날에 대한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었기를 바라나?

**MM**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 독특한 경험, 자라온 문화라는 렌즈를 통해 예술을 바라본다. 나는 미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경이로움, 즉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느낌을 그들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LH** 고전 회화를 재구성 혹은 재해석하는 작업에 어떤 의도가 담겼는지 묻고 싶다.

**MM** 고전 회화에 관심이 많다.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때로는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재해석하는 과정이 특정 작품이나 예술가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술가에게 접근하고 그들이 할 때 창작했던 시대보다 잘 이해하고, 심지어 그들의 생각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 참탄스럽다 해도 가질 수 없는 작품을 소유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 다른 작가의 작품을 그리기도 한다.

**LH** 소셜 미디어는 어떻게 활용하나? 최근 흥미롭게 본 콘텐츠가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작업에 어떤 식으로 모든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다.

**MM** 소셜 미디어는 확실히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나와 다른 콘텐츠에 예민할 것이다. 나는 예술, 오래된 TV 프로그램, 특수한 관심사 등 오락보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보는 편이다. 때로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레이어아웃을 그대로 작품에 반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바스키어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의 프레임을 그리면서 빨간색 자영 마와 초피 수를 포함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지다. 큐레이터 친구가 공유한 사진을 그럴 때 그 게시물에 내가 ‘좋아요’로 반응하는 장면까지 넣어 완성했는데 작품의 제목이 (Barca od Mackajewskiego(마시요브스키의 하트))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 나는 소셜 미디어가 앞서 언급한 미디어에서의 연중산에 있다고 본다.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한 관심사 때문에 이용 가능한 수많은 이미지를 좋아한다. 나는 인터넷이 없고 (사진) 앨범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자랐기 때문에 그림의 목재본을 보려면 대학 도서관을 방문해야 했다.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구글에 있다. 이용을 어렵하고 클릭만 하면 된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이러한 접근성은 환상에 불과하다. 모든 것을 보기에는 인량이 충분치 않다. 여전히 선택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티스트가 어떤 선택을 할 때냐가 그 선택이 가치 있는게 스토리라고 생각한다.

**LH**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평생 사각형을 마주할수록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MM** 빈 캔버스에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캔버스에 다가간 이상 나는 ‘빈’ 상태가 아니다. 나는 우선 머릿속에 명확한 개념을 그려며, 명확한 미션 없이 가는 절대 지지 않는다. 실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보이지 않는’ 작업을 하며 머릿속으로 작품을 살펴본다. 빈 종이를 찾을 때는 문장을 적거나 스케치하기 위해서다. 빈 종이를 찾아내고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건 내 작업 방식이 아니다.

**LH** 창작 과정에서 당신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과 가장 괴롭게 하는 일은?

**MM** 불감을 즐기고 혼합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 항상 그 부분을 불평한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는 재료를 소모하기 때문에 캔버스에 다가가면 몇 시간 동안 집중해야 하고 상당히 힘들다. 반면에 스케치와 함께 그림의 개념을 고민하고 다듬는 과정을 가장 좋아한다. 방금 완성한 작품을 보는 순간도 정말 즐겁다. 기쁨과 피로가 뒤섞인, 엄청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다.

**LH**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MM** 어려운 질문이다. 가장 먼저, 문화와 현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예술을 마찰할 때 여러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며, 동시에 예술은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예술가 모두에게 유연성과 포용성을 전할 수 있다.

**LH** 작가로서 내면에 품은 중국의 질문 혹은 중국의 목표가 있을까?

**MM**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와 세상에 대해 지루해하지 않는 일. 호기심과 경이로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그것이 무엇을 수반하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계속 길을 잃어가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내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림을 통해 많은 개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화가는 저마다 자신만의 해결책을 가지는데, 내 작품에도 그런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웃)



